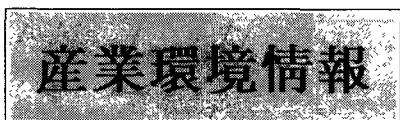


## o 第 25次 定期總會 開催

본 협회는 2월 24일 협회 회의실에서 각 회원사 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98년도 사업보고, 98년 결산보고, 그리고 임원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임원개선에서는 임기만료된 황선웅 전무이사 후임으로 김봉직씨가 신임 전무이사로 선임되었다.



## - 1999年 主要 環境政策 方向(下) -

전 병 성 환경부 정책총괄과장

(註 : 상공회의소의 산업환경정보 개재 자료인용)

### 4) 자원절약 및 환경친화적 소비문화 정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은 환경을 보호하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주요수단이다. 따라서 정부는 '99년에 재활용품 의무구매를 확대하고 중고물품 교환과 알뜰시장을 활성화시켜 재활용 품 수요기반을 조성하고 재활용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재활용품 가격변화·재고량 등에 대한 모니터링제 실시 및 "재활용품 판매지원센타" 설치·확대 등을 통해 재활용품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활용 산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500억원)을 확대할 것이다. 특히 "폐기물 통합 재활용 체계"를 도입하여 제품 생산자에게 재활용 가능폐기물의 회수·재활용에 대한 직접적 책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

폐기물 감량화와 관련하여서는 감량화 우수사업장 지정을 확대하고 종량제 적용대상 일반폐기 물 발생사업장(1일 300kg 이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폐기물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한편, 가전제품의 포장용 완충재의 감량의무를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집단급식소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화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 및 음식물쓰레기 공공 자원화시설 확충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따른 환경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자원 재활용 활성화에 540억원,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에 220억원, 소각시설과 음식쓰 레기 처리시설에 670억원, 재활용 증진에 1,244억원을 각각 투자하여 폐기물 문제가 근원적으 로 해결 되도록 할 것이다.

### 5) 생태계의 균형성 유지 · 보전

자연생태계의 효과적 보전을 위해 국토환경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특성, 환경용량, 현재와 장래의 활용도 및 개발수요 등을 고려한 국토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연차적으로 생태계 보전지역을 확대하여 우수한 생태계를 보전하고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처인 습지보전을 위해 습지 보전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야생동물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야생동물의 이동 통로를 조성하여 백두대간 등 생태계 단절지 역을 복원하고, 폐금속 광산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 실시등 오염토양 복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 6) 협력적 관계에 기반한 환경보전

환경문제는 인간의 모든 활동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계층이나 집단의 노력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다. 따라서 범국민적, 범정부적인 참여와 관심, 즉 협력적 관계의 구축을 통한 환경문제의 해결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교통, 에너지, 국토개발, 농업,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관계부처와 환경부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스스로 정책결정, 정부조달, 시설관리 및 운영과정에서 환경성과를 증진시키는 녹색정부(Green Government)를 지향할 것이다.

둘째, 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환경 기준을 설정하도록 유도하여 지방환경관리체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셋째, 기업·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정부와 기업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기업환경 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 환경정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에서 손쉽게 이용될 수 있는 환경기술 개발에 정부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또한 민간환경단체, 시민들의 자율적인 환경운동을 적극 지원하여 시민들에 의한 자율환경 감시체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7) 지구환경 보전에 능동 참여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하여 '97. 12월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합의한 「교토의정서」 가 채택되고 '98. 11월 제4차 당사국 회의에서는 개도국인 아르헨티나와 카자흐스탄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할 뜻을 보임에 따라 우리나라와 같은 선발개도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더욱 거세어 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는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구환경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등 국제환경 규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업무분담 및 협의기구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범정부적인 지구환경 보전전략을 수립·추진할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협약 후속협상에 대비하여 각 부처의 분야별 세부대책을 총괄·조정하는 “지구온난화 방지 종합대책” 수립·추진함과 아울러 지구온난화 물질을 줄이기 위한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다.

## 3. 뗏는 말

“농사는 1년지 대계요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환경보전은 천년지 대계”라고 할 수 있다. 지나온 천년은 환경과 자원을 이용하고 개발함으로써 물질적 풍요로움은 크게 성취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 후손의 삶의 터전인 환경은 오염되고 파괴되었고,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환경호르몬 등이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99년은 이러한 환경적 위해를 해결하고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체적한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21세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의 국가정책은 개발정책과 환경정책의 조화, 사전예방적 환경행정의 확립, 환경과학기술 증진, 환경투자 확대 등 환경 친화적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끝>